

최근 건설업 고용 동향 분석

이 기 씬*

2024년 건설업 고용은 부진했다. 건설업 취업자는 1~10월 평균 3.3만 명 감소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다. 특히 2분기 이후 취업자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 올해 건설업 고용 감소는 건설업 경기 침체로 노동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2024년 건설업 경기는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크게 위축됐다. 높은 금리와 공사비로 2023년에 건설 수주, 건축 착공 등이 큰 폭 감소한 영향이다. 또한 2023년 이후로 건설기업의 경영 실적이 크게 하락하고 폐업 업체 수도 증가했다. 공사 물량이 크게 감소하고 건설기업의 이익률도 하락하면서 고용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높은 건설 물가로 건설 경기 부진이 건설 고용으로 빠르게 반영된 측면이 있다.

I. 머리말

건설업은 고용과 경기 간 상관관계가 높은 편에 속한다. 대체로 건설 고용은 건설 경기 변동에 후행하고, 경기에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한다. 물론 건설 고용 변동과 경기 변동 간 관계는 당시 주어진 경제 여건에 따라 시기별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건설업 경기와 고용 변동에 주요한 변수는 단연 2021년 이후 누적된 건설 물가 상승일 것이다. 높은 건설 물가는 올해 건설 경기 부진을 야기하고, 이는 급격한 건설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 이 글의 목적은 2024년 건설업 경기 상황과 고용 상황을 정리해 보는 데 있다. 다양한 지표를 수집하여 건설업 경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설업 고용 변동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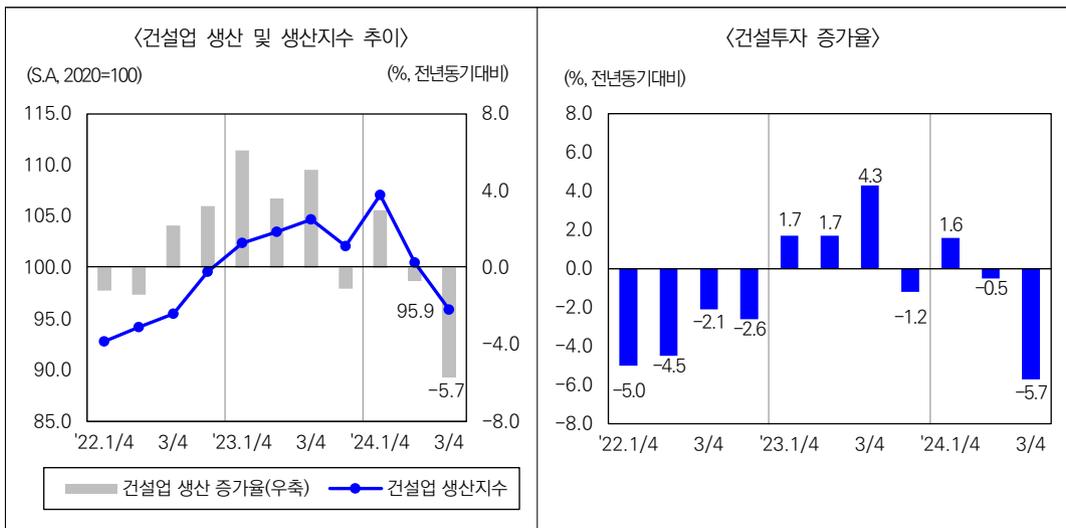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ppeum@kli.re.kr).

II. 건설업 경기 및 고용 동향

1. 건설 경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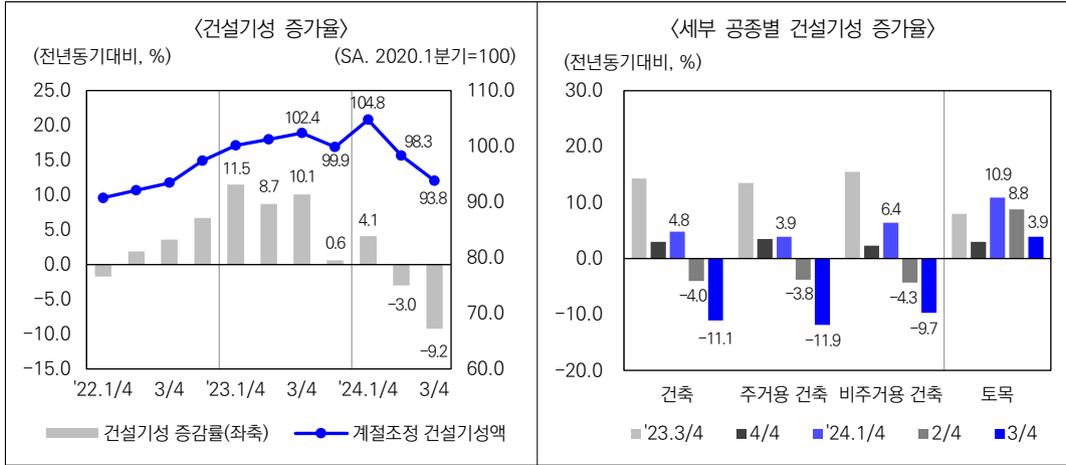
올해 건설업 경기는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크게 악화됐다. [그림 1]에 나타나듯 건설업 생산은 2분기에 감소로 전환되고 3분기에는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 3분기에 건설업 생산이 전년 동기대비 5.7% 감소했는데 지난 몇 년간 가장 큰 폭의 감소다. 주거용 건물 및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생산이 모두 감소했다. 건설투자와 건설기성도 상당히 부진했다. 건설투자는 2분기 0.5% 감소, 3분기에 5.7% 감소했는데, 건물건설 부문에서 감소한 영향이다. 건설기성액은 실제 공사실적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이다. 올해 2~3분기에 건설기성액 감소폭이 대폭 확대됐다(그림 2 참조). 건설기성액은 민간기관 발주가 직영공사와 도급공사에서 모두 대폭 줄었다. 세부 공종별로는 건축 부문 건설기성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건설공사 감소로 건설업 중간재 수요도 감소했다. 건설용 중간재 생산 및 내수 출하지수 감소폭이 전년보다 확대됐다. 건설용 중간재 내수 출하지수 감소폭이 확대됨과 동시에 재고는 증가하여 건설용 중간재 재고/출하 비율은 매 분기 증가세가 확대됐다.

[그림 1] 건설업 생산 및 건설투자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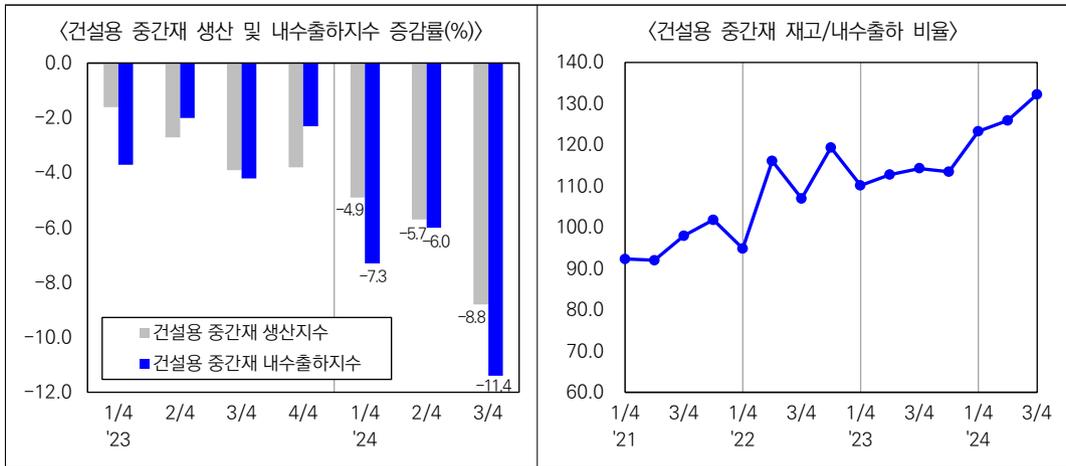
주 : 건설업 생산 및 건설투자는 실질 GDP(원계열) 금액 기준(2020=100)이며, 건설업 생산지수도 2020=100임.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전산업생산지수」.

[그림 2] 건설기성 추이



주: 건설기성(총액)은 불변금액 기준, 세부 공종별 건설 기성은 경상금액 기준임.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그림 3] 건설용 중간재 생산 및 내수출하지수, 건설용 중간재 재고/내수출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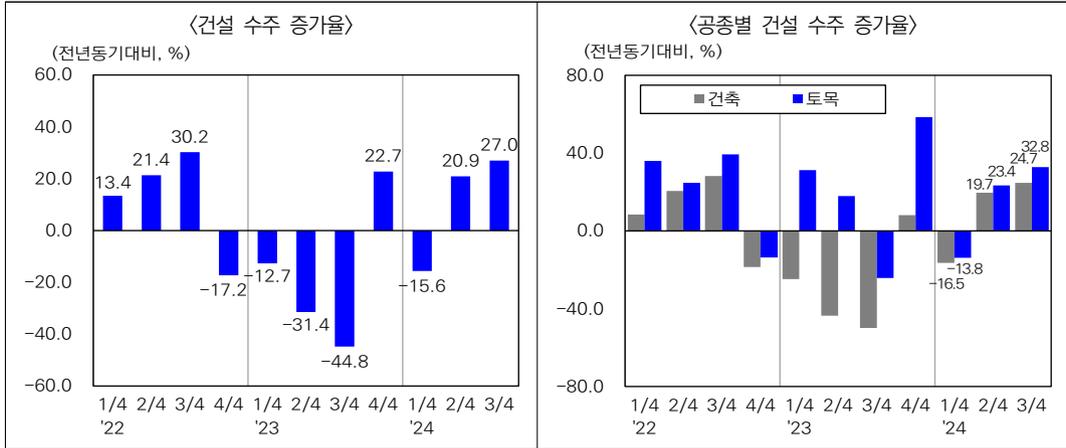


주: 1) 좌: 건설용 중간재 생산, 출하, 재고지수는 2020=100이며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2) 우: 건설용 중간재 재고출하비율 = 계절조정 중간재 재고지수/계절조정 중간재 내수출하지수*100.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건설 경기 동행지표는 부진하나 선행지표는 개선세다. 지난해는 건설 수주와 건축 허가 및 건축 착공, 건설공사 계약액 등이 크게 부진했다. 올해 들어 건설 수주는 증가로 전환되고 건축 허가 및 건축 착공 감소폭도 줄었다. 최근 건설 경기 선행지표들의 개선세가 가까운 시일 내에 건설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긴 어렵다. 건설 공사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이전에 건축 허가, 건설 수주, 건축 착공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건설 수주, 건축 인허가·착공, 건설계약액과 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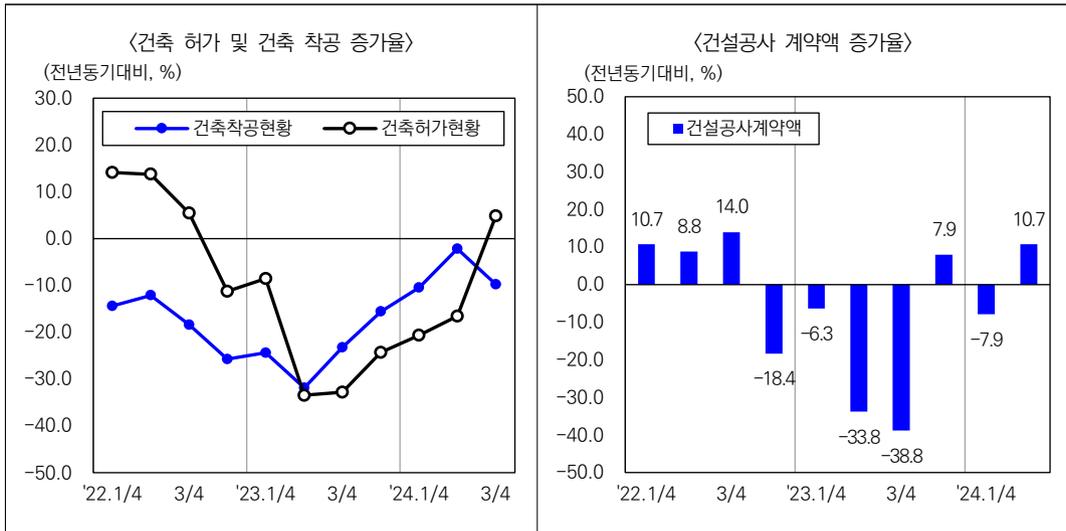
선행지표들은 1~2년 시차를 두고 건설기성 및 건설투자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올해 건설 경기 부진도 지난해 선행지표들이 대폭 감소한 것이 시차를 두고 반영된 영향이다. 건설 자체비 영향을 많이 받는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지난해 건설 수주가 급감했고, 이것이 올해 건축 부문의 경기 부진으로 나타났다. 올해 건설 수주 및 여타 선행지표들이 개선된 효과도 시차를 두고 건설기성 및 건설투자에 반영될 것이다. 또한 올해 건설 선행지표의 수치상 개선 자체에 지난해

[그림 4] 건설 수주 증가율 추이



주 : 건설 수주는 경상금액 기준임.
자료 :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그림 5] 건축 허가·건축 착공 증가율, 건설공사 계약액 증가율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허가·착공·준공통계」, 「건설공사계약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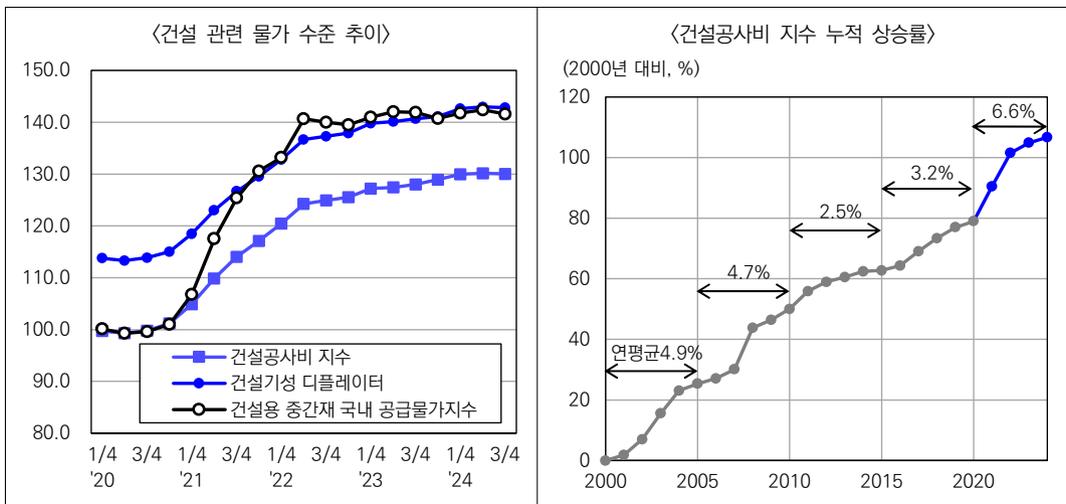
대폭 감소한 기저 효과 영향이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건설 관련 물가 상승세는 최근 다소 안정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그동안 누적된 건설 물가 상승으로 건설 물가 수준이 크게 높아져 있다(그림 6 참조). 건설공사비 지수, 건설기성 디플레이터, 건설용 중간재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모두 2021년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률은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전년대비 11.5%, 11.1%로, 두 해 연속 전년대비 11% 이상 상승했다. 2023년에는 3.3%, 2024년 1~10월에는 1.8% 상승하여 상승폭은 축소되었지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건설공사비 지수 누적 상승률은 27.7%에 달한다. 2000년 이후 5년 단위 건설공사비 지수 누적 상승률 중 가장 크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건설용 중간재 국내 공급물가지수 누적 상승률도 37.7%이다. 건설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었을 뿐 물가 하락은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건설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건설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크게 하락했다. [그림 7]에 나타나듯 업황 실적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크게 낮아졌다. 건설업 업황 BSI는 올해 들어 하락 추세를 보이며, 장기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업황 실적 BSI가 하락한다는 것은 업황 실적이 나쁘다고 응답한 업체가 많아졌다는 의미이다. 향후 업황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느끼는 업체가 증가했다.

미분양 주택은 최근 들어 증가세이다. 특히 공사완료 후 미분양 주택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 공사완료 후 미분양 주택은 2022년 12월 7,518호에서 2023년 12월 10,857호, 2024년 10월에는 18,307만 호까지 증가했다. 2022년 말보다 약 2.4배 증가한 수준이다. 수도권외의 공사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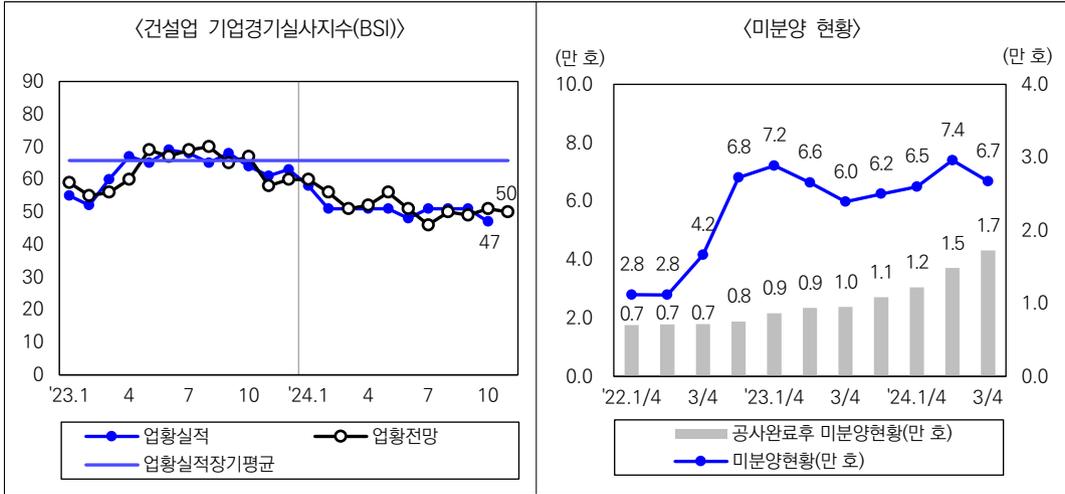
[그림 6] 건설 관련 물가 추이, 건설공사비 지수 누적 상승률



주 : 1) 건설공사비 지수 및 건설용 중간재 국내공급물가지수는 2020=100, 건설기성 디플레이터는 2015=100임.
 2) 연도별 및 분기별 건설공사비 지수는 월별 공사비 지수의 기간 평균으로 사용하였음. 2024년은 1~10월 평균.
 3) 오른쪽 그림의 연평균 상승률은 연간 상승률의 기간 평균, 누적 상승률은 연간 상승률의 누적합.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공사비지수」;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그림 7] 건설업 기업경기실사지수, 미분양 현황



주: 1) 업황실적 장기평균은 2003.1월~2023.12월 평균.
 2) 미분양 현황은 각 분기말 자료임.
 자료: 국토교통부, 「미분양주택현황보고」;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후 미분양 주택은 2024년 10월에 2022년 말 대비 약 3.0배 증가했다. 전국 공사완료 후 미분양 주택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도 올해 들어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2024년 10월에는 2022년 말 대비 2.3배 증가했다. 공사완료 후 미분양 주택 증가는 기업의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고금리¹⁾ 상황이 지속되었던 데다, 높은 건설 물가에 미분양 주택 증가까지 더해져 2023년 중 건설기업의 경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됐다(표 1 참조). 2023년에 건설기업의 수익성, 성장성이 모두 하락했다. 특히 종합건설업의 수익성 및 성장성 지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높은 공사물가로 영업이익은 감소하고 높은 금리로 이자비용은 증가해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은 커졌다. 영업활동에 의한 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어느 정도까지 부담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이자보상비율이 2023년에 크게 낮아졌다. 종합건설업의 이자보상비율은 2022년 317.6에서 2023년 129.7로, 전문직별 공사업은 2022년 638.3에서 2023년 559.5로 낮아졌다. 2024년(분기자료)에도 건설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지표는 하락했다. 건설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2024년 1분기 4.0%에서 2분기 0.9%로 낮아졌고, 매출액영업이익률도 2분기 3.0%로 전년동분기 3.3%보다 낮아졌다.

2023년부터 건설업체 폐업 신고가 증가했다. [그림 8]은 사업 포기 및 회사 도산 사유로 폐업

1) 기준금리 추이: 2021년 1.00%, 2022년 3.25%, 2023년 3.50%, 2024년 1~3분기 3.50%, 10월 3.25%, 11월 3.00%.

신고를 한 건설업체 수 추이를 나타낸다. 2023년 건설업체 폐업신고는 3,065건으로 2020년 2,271건, 2021년 2,597건, 2022년 2,493건과 비교하면 상당폭 증가했다. 2024년에도 폐업신고가 증가해 10월까지의 건설업 폐업신고가 이미 2,590건에 달하고 있다. 2023년(1~10월)보다도 136건이 많다. 2023년과 2024년 중 특히 종합건설업 폐업신고 증가폭이 큰 폭 확대됐다. 2023년 종합건설업 폐업신고는 446건으로 전년대비 52.7% 증가했고, 2024년에도 13.1%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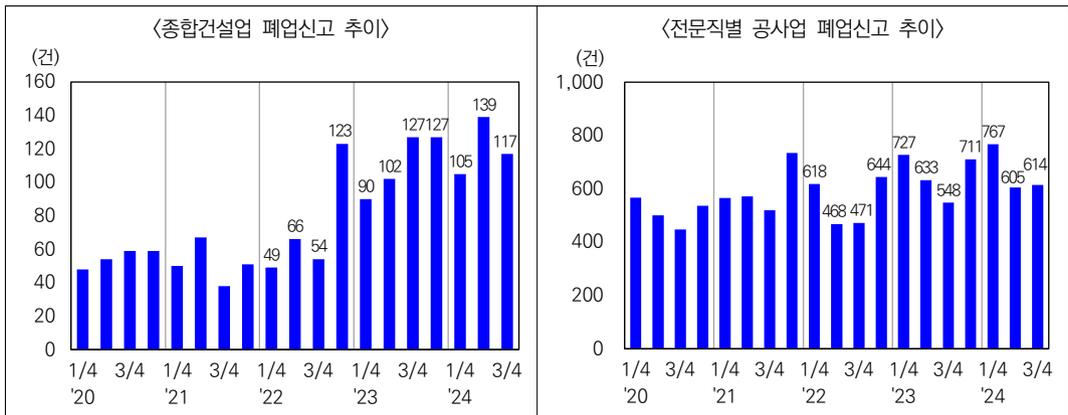
〈표 1〉 건설업 기업경영분석

(단위: %, 전년대비)

		건설업			종합건설업			전문직별 공사업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10.6	8.3	6.0	10.8	7.7	5.6	10.1	9.8	7.0
	매출액증가율	6.4	13.7	2.9	6.5	14.0	0.3	6.3	13.4	6.5
수익성	매출액세전순이익률	5.8	4.3	2.7	7.2	4.7	1.7	4.1	3.7	3.8
	매출액영업이익률	4.7	3.9	2.9	5.6	4.4	2.4	3.5	3.2	3.6
	금융비용대매출액	0.9	1.0	1.3	1.3	1.4	1.9	0.4	0.5	0.6
	이자보상비율	519.7	385.0	219.8	448.5	317.6	129.7	782.1	638.3	559.5
안정성	부채비율	106.9	112.4	113.5	131.7	138.2	141.8	64.1	66.9	66.2
	차입금의존도	24.7	26.2	25.9	27.0	28.9	28.7	19.0	19.2	19.1
	차입금대매출액	26.8	26.6	28.2	37.0	36.3	39.5	13.7	13.4	13.7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그림 8〉 건설업 폐업신고 추이



주 : 1) 건설업 폐업신고 수는 건설업 폐업신고 행정공고(신규공고)에서 폐업 사유가 사업 포기 및 회사 도산인 경우만 집계함.
 2) 2019.1월~2024.10월 종합건설업 폐업신고(사업 포기+회사 도산) 1,766건 중 회사 도산으로 폐업한 경우는 29건, 전문직별 공사업 폐업신고 13,633건 중 회사 도산으로 폐업한 경우는 254건임. 2024년 회사 도산으로 폐업한 건수는 종합건설업이 6건, 전문직별 공사업은 44건임.

자료 :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 「건설업 행정공고」.

종합건설업 폐업신고 중 약 70%는 건축공사업체였다. 전문직별 공사업 폐업신고도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19.0%, 4.3% 증가했다. 한편 2024년 들어 건설업체 등록건수는 감소했다.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건설업체 등록건수는 7,696건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 변경으로 등록건수가 크게 늘었던 2022년을 제외하고 2019~2023년(1~10월) 평균 8,866건보다 적다. 전문직별 공사업체 등록건수는 2023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하였으나 종합건설업체 등록건수는 49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등록건수(1,049건)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2. 2024년 건설업 고용 특징

올해 건설업 경기 침체는 여러 지표들에서 동시에 확인된다.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공사 실적이 부진하고, 기업들의 경영 상황도 이전에 비해 악화됐다. 고금리, 고물가 등 건설기업 경영에 부정적 환경이 지속되면서 특히 종합건설업의 경영 실적이 2023년부터 크게 악화됐다. 또한 건설업 폐업신고도 증가했다. 종합건설업 폐업신고 증가폭이 2023년부터 확대됐고 최근에는 등록신고도 줄었다. 올해 건설업 고용 부진은 건설 경기 부진으로 인해 노동 수요가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건설업은 고용이 경기 변동에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 중 하나이다. 건설기성 증가율 및 건설투자 증가율에 대해 건설업 취업자 증가율은 시차를 두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²⁾ 특히 건축기성, 건물건설투자와 건설업 취업자 상관관계가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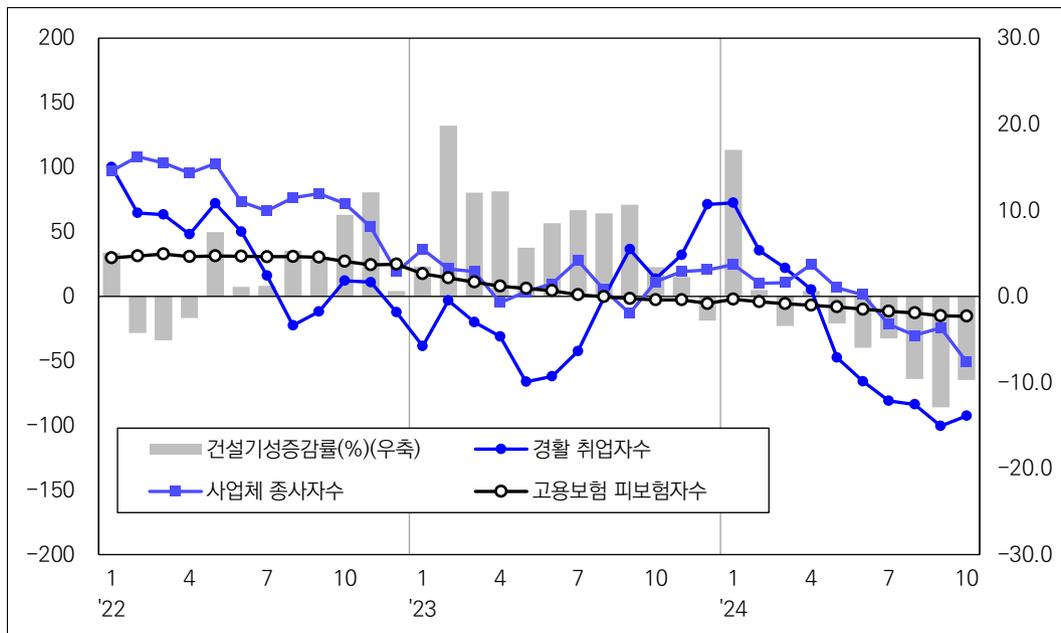
건설업 취업자는 2024년 1~10월 평균 3.3만 명 감소했다. 금융위기 기간인 2009년 이후로 취업자 감소폭이 가장 크다. 건설업 취업자는 1분기에 4.3만 명 증가했으나 2분기에는 3.6만 명 감소했고, 7~10월에는 8.9만 명 감소하여 분기별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사업체노동력조사의 건설업 종사자 수도 상반기까지 증가했으나 3분기 이후 감소했다. 3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5만 명 감소했고, 10월에는 전년동월대비 5.1만 명 감소했다. 종합건설업 고용은 2023년부터 부진한 흐름이었다. 한편 전문직별 공사업 종사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증가했으나 하반기 이후 감소폭이 확대됐다. 고용행정통계 자료에서 건설업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올해 감소가 이어졌다. 건설업 피보험자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로 매월 감소폭이 확대됐다. 건설업 피보험자 중 97% 이상이 종합건설업 피보험자다. 모든 자료를 종합해 보면 올해 건설업 고용 감소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종합건설업 고용 둔화세에 하반기 이후 전문직별 공사업의 고용 감소가 가세한 결과이다.

[그림 11]에서 나타나듯 건설업 취업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였다. 건설업 취업자는 2008~2009년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로는 꾸준히 증가해 2023년 2,114천 명에 이르렀다. 2024년 건설

2) 2001년 1분기~2024년 3분기까지 자료로 보면, 건설업 취업자 증가율은 건설투자 증가율 및 건설기성 증가율과 2~3분기 시차에서 상관관계가 가장 높고, 최대 4시차까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

[그림 9] 건설업 고용지표 증감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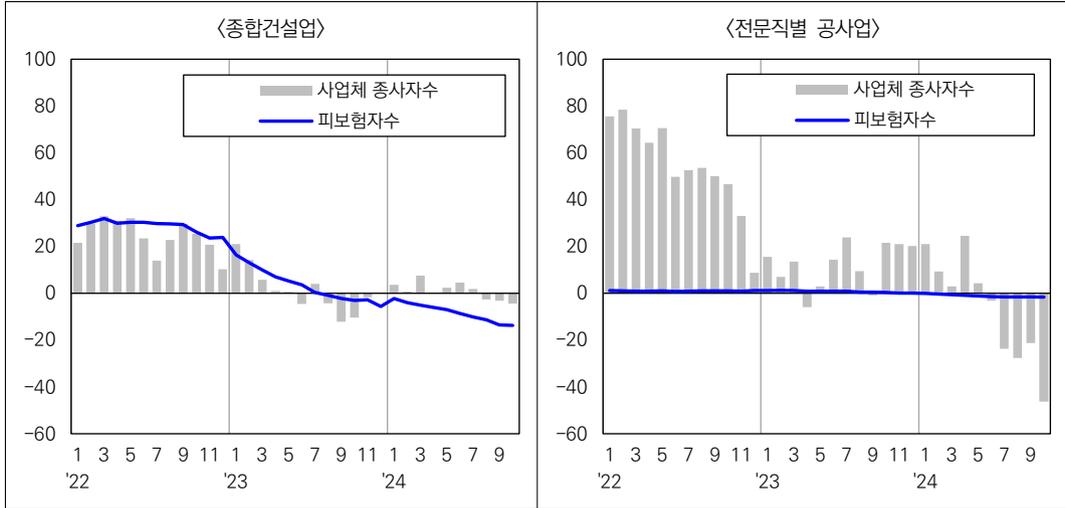
주 :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는 상용+임시일용 근로자로 기타(특고, 업무 습득을 위해 급여 없이 일하는 자, 그 밖의 종사자)는 제외.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는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시(상용+임시)근로자임(자영업 및 일용직 제외)(이하 동일함).
 자료 :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업 취업자수는 1월을 정점으로 6개월 연속 감소했다. 과거와 비교해도 전월대비 취업자가 감소한 기간이 긴 편이었으며, 감소 규모도 이례적으로 컸다. 2월부터 7월까지 건설업 취업자는 약 16.3만 명 감소했다. 2024년 10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1월보다 12.2만 명 적은 수준이며, 2018년 취업자 수준과 같다. 올해 건설업 취업자의 감소는 지난 몇 년간의 취업자 증가분을 모두 상쇄했다.

최근 건설업 취업자는 추세와의 편차가 확대되면서 장기 추세를 상당폭 하회한다(그림 11 오른쪽 참조). 과거 건설업 취업자 수가 장기 추세와의 편차가 확대되었던 시기는 ① 2009. 2분기~2010. 1분기, ② 2015. 4분기~2016. 2분기, ③ 2019. 3분기~2020. 3분기 그리고 ④ 최근 2024. 2분기~10월 4차례 정도이다. ① 2009. 2분기~2010. 1분기와 ③ 2019. 3분기~2020. 3분기에는 건설 경기 관련 지표가 부진했다. 반면 ② 2015. 4분기~2016. 2분기와 같이 건설 경기 지표들이 모두 호조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된 경우도 있었다. ④ 최근 2024. 2분기~10월은 건설업 취업자 감소가 건설 경기 침체와 함께 나타났다는 점에서 ① 2009. 2분기~2010. 1분기, ③ 2019. 3분기~2020. 3분기 상황과 유사하다. 다만 과거 건설업 고용이 경기후행적으로 조정되었던 것과는 달리 최근 건설업 고용 조정은 경기동행적인 모습이다. ① 2009. 2분

[그림 10] 건설업 중분류별 고용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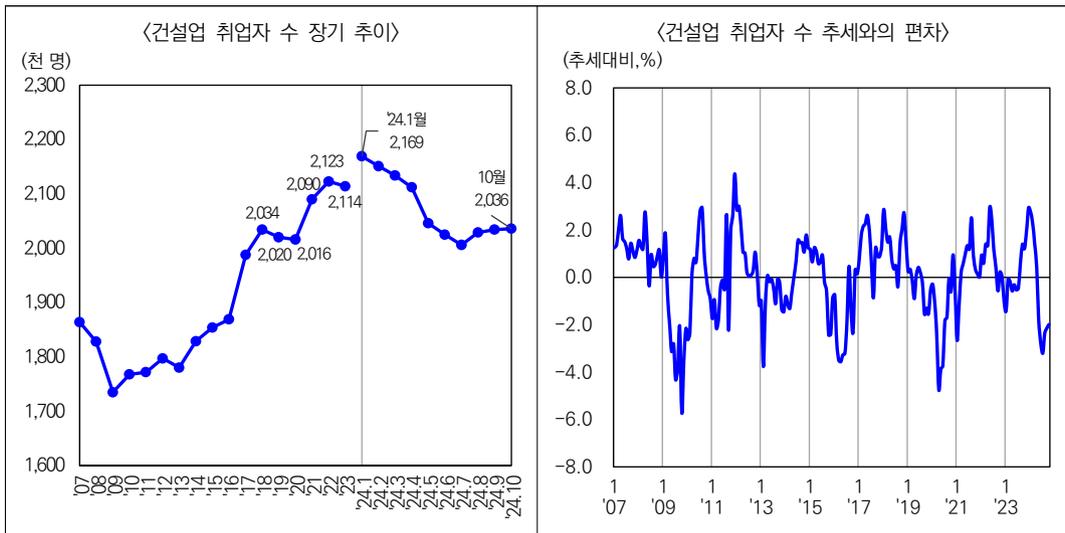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월동기대비)



주: 전문직별 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비해 피보험자 수 변동이 크지 않음. 전문직별 공사업 피보험자 증감 규모는 ±4천 명 수준으로 지난 몇 년간은 전년동월과 같거나 소폭 증가하는 추세였음. 그러나 2024년 상반기에 1천 명 감소, 7~10월 평균 2천 명 감소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통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EIS.

[그림 11] 건설업 취업자 장기 추이(좌), 추세와의 편차(우)



주: 1) 좌: 2024년 건설업 월별 취업자 수는 계절조정 자료.

2) 2004년 1월~2024년 10월까지 기간에 대해 계절조정된 취업자 수를 로그 변환한 후 HP필터링을 이용하여 추세를 제거하였으며, 2007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그림으로 나타내었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기~2010. 1분기, ③ 2019. 3분기~2020. 3분기에는 건설기성 및 건설투자가 감소한 이후 건설업 취업자가 큰 폭 감소했다. ④ 최근 2024. 2분기~10월에는 건설 경기 부진과 건설업 취업자 감소가 거의 동시에 나타난다.

올해는 상대적으로 건설 경기 부진이 건설 고용으로 빠르게 반영됐다. 건설 경기 부진이 다소 급격하게 나타났고 고금리, 고물가 등 경제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지난해 건설업 고용 상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2023년은 건설 경기가 호조였음에도 취업자가 증가하지 못했고, 올해는 건설 경기 부진이 즉각적으로 건설업 취업자 급감으로 이어졌다(그림 9 참조). 이는 그간 큰 폭 상승한 공사비 영향이 크다. 건축기성이 증가한 영향으로 건설기성은 2022~2023년 두 해 연속 증가했다. 2023년은 건축공사가 활발히 진행되었음에도 고금리와 높은 공사비로 기업 수익성이 하락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규 채용을 늘릴 수 없었다. 반대로 올해는 높은 공사비 영향으로 건축 공사 물량 감소가 즉각적으로 건설 고용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2023년과 2024년은 높은 공사비로 인해 건설 경기에 대한 건설 고용의 반응이 비대칭적으로 나타났다.

올해 건설업 고용 감소는 상용직의 감소가 동반되었다는 점도 과거와의 차이점이다. 과거 건설 경기 부진으로 건설업 취업자가 감소했던 시기에는 건설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큰

〈표 2〉 과거 건설업 취업자 감소 시 주요 건설경기 지표 변화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2009. 2분기 ~2010. 1분기		2015. 4분기 ~2016. 2분기		2019. 3분기 ~2020. 3분기		2024. 2분기 ~10월	
		(직전 4분기)		(직전 4분기)		(직전 4분기)		(직전 4분기)	
건설업 경기지표 증감률	생산	(-3.0)	0.7	(3.9)	10.4	(-4.5)	0.4	(2.7)	-3.2
	생산지수	(-8.6)	3.7	(0.8)	13.0	(-6.0)	-1.2	(5.9)	-6.1
	건설투자	(-1.6)	3.4	(4.8)	10.0	(-5.8)	2.2	(1.6)	-3.1
	건설기성	(-8.6)	3.7	(0.8)	13.0	(-6.0)	-1.2	(5.9)	-6.1
건설업 취업자 증감	취업자 증감	-97		-25		-22		-66	
	상용직	7		4		60		-37	
	임시직	-23		14		-2		17	
	일용직	-64		-30		-45		-46	

주: 1) 건설업 경기지표 증감률 및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감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및 증감의 기간 평균임.

2) 2024.2분기~10월 기간은 경기지표는 2024년 2~3분기 평균, 취업자 증감은 4~10월 평균임.

3) 직전 4분기는 해당 기간 이전 4개 분기의 수치로 차례대로 2008년 2분기~2009년 1분기, 2014년 4분기~2015년 3분기, 2018년 3분기~2019년 2분기, 2023년 2분기~2024년 1분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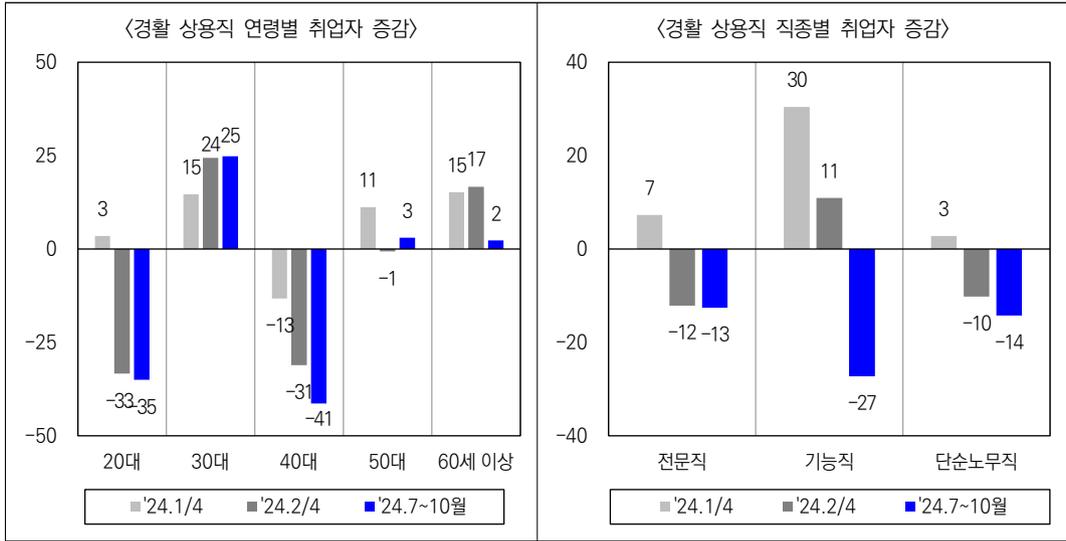
4) 종사상 지위별 고용 증감은 임금근로자만 제시하였으며 건설업에서 임금근로자 비중은 약 80% 이상.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일용직을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가 나타났다. 올해는 일용직 감소와 상용직 감소가 함께 나타났다. 건설업 상용직은 꾸준한 증가세로 건설업 내 차지하는 비중이 40% 중반대까지 상승했다.

[그림 12] 건설업 상용직 연령별, 직종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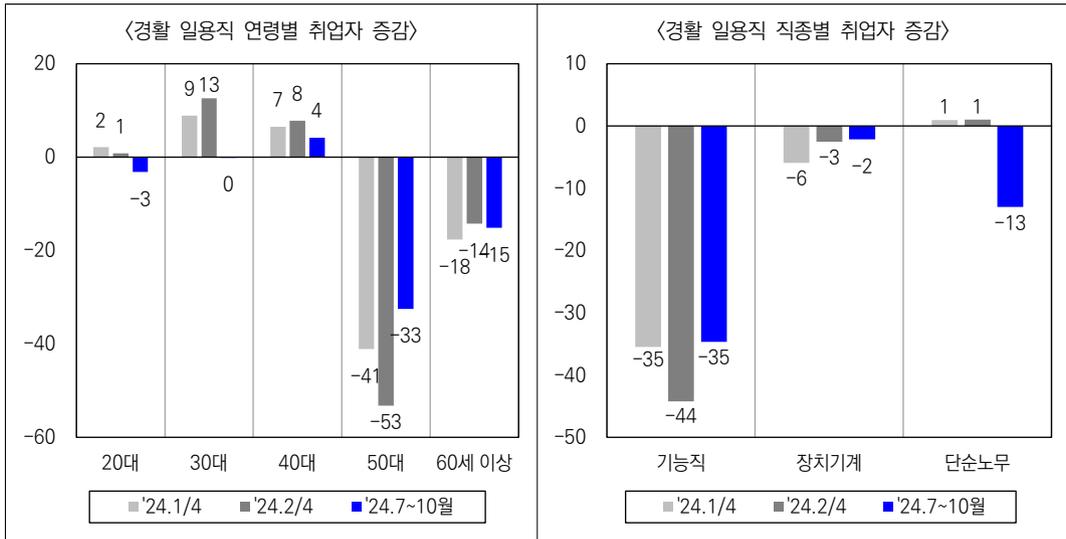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13] 건설업 일용직 연령별, 직종별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건설업 상용직 감소는 2016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주로 20대와 40대 상용직이 감소했다. 2020년 3분기 이후로 증가세였던 20대 상용직은 올해 2분기부터 감소했다. 2023년 하반기부터 감소한 40대 상용직은 올해 2~3분기에 감소폭이 확대됐다. 기능직 감소세에 관리직, 전문직에 서의 감소가 더해진 영향이다. 한편 건설업 일용직은 2021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업 일용직은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감소했다. 기능직 감소세에 3분기 이후로 단순노무직 감소폭도 확대된 영향이다.

〈표 3〉은 건설업 퇴직공제 피공제자 추이를 나타낸다. 퇴직공제 피공제자는 퇴직공제에 가입된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근로자를 의미한다. 퇴직공제는 건설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 60세 도달(252일 이상 적립), 65세 도달(252일 미만 적립) 등의 경우에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퇴직공제 피공제자는 올해 2월부터 감소했고, 하반기 이후로는 감소폭이 더욱 확대됐다. 올해 피공제자 감소분의 대부분은 내국인³⁾이다.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올해 2월부터 감소폭이

〈표 3〉 퇴직공제 피공제자 동향

(단위: 천명)

	2023				2024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피공제자 수(천명)	757	813	803	824	750	728	782	789	792	769	716	715	625
내국인	641	686	677	693	627	610	654	660	665	644	599	601	524
외국인	116	128	126	132	123	117	128	129	126	124	117	114	101
피공제자 증감	85	55	28	20	46	-30	-27	-10	-27	-54	-79	-101	-174
내국인	69	35	12	3	30	-30	-30	-14	-25	-48	-70	-89	-148
20대 이하	9	5	3	2	6	3	3	4	3	1	-2	-3	-6
30~40대	27	16	11	7	15	2	2	6	2	-4	-10	-16	-33
50대	24	15	9	6	13	-6	-5	0	-3	-10	-17	-23	-44
60세 이상	9	-2	-10	-12	-4	-30	-30	-24	-27	-34	-41	-47	-65

주 : 1) 피공제자 수는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현장(1억 원 이상 공공공사,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에서 1년 미만으로 일한 근로자를 의미하며, 해당 월에 모든 건설현장에서 일한 근로자가 아님에 유의.

2) 증감은 전년동월대비이며 분기자료는 기간 평균.

3) 피공제자 수는 11월 말에 집계된 자료로 소급신고 등으로 인해 추후 수정될 수 있음.

자료 : 건설근로자공제회, 「분기별 퇴직공제 피공제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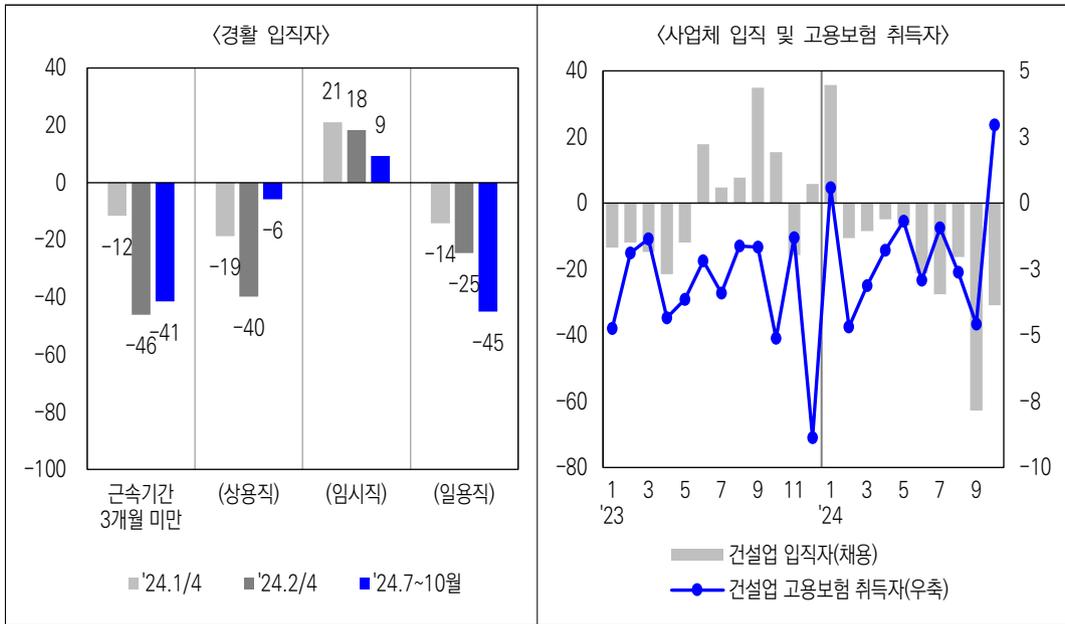
3) 퇴직공제 피공제자는 80% 이상을 내국인이 차지하고 있다. 내국인 피공제자 연령별 비중은 2024년 기준 20대 이하와 30대가 각각 10% 미만, 40대는 10% 후반대이며, 50대와 60세 이상 연령층이 각각 30% 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내국인 피공제자 직종별 비중은 단순노무직과 비슷한 형태의 '보통인부' 직종이 약 60%, '형틀목공'과 '배관공'이 각각 10% 초반대이다. 참고로 외국인 피공제자 연령별 비중은 50대가 약 27% 정도로 가장 높고, 그 외 20대 이하, 30대, 40대, 60세 이상 연령층은 각각 10% 후반대로 분포되어 있다. 직종은 '보통인부'와 '형틀목공'에 각각 30% 이상, '철근공'에 약 18%, 배관공에는 약 9% 비중으로 분포되어 있다.

확대되기 시작했고, 3분기 이후로는 30~50대 연령층에서도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보통인부'에서 감소 규모가 컸고, '형틀목공'에서도 감소폭이 점차 확대되어 내국인 피공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했다.

올해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는 신규입직자 감소 영향이 크다. 근속기간 3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신규입직자로 정의하면, 건설업 신규입직자는 1~10월 평균 3.4천 명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신규입직자가 큰 폭 감소했던 기저 효과에도 올해 건설업 신규입직자가 적지 않은 규모로 감소했다. 건설업 신규입직자는 2022년부터 감소 추세다. 올해 신규입직자 감소가 지난 2년과 비교되는 점은 상용직 신규입직자 감소다. 과거 건설업 신규입직자 감소는 대부분 일용직 신규입직자가 감소한 영향이었다. 올해 건설업 신규입직자 감소는 일용직뿐만 아니라 상용직에서도 나타났다. 한편, 건설업 입직자 감소에 비해 건설업 신규실업자는 상대적으로 소폭 상승했다. 이전에 건설업에 종사했던 실업자 중 직장을 그만둔 지 3개월 미만인 사람을 건설업 신규실업자로 정의하면⁴⁾, 건설업 신규실업자는 2분기 중 증가폭이 확대됐고(1.5만 명 증가), 3분기 들

[그림 14] 건설업 입직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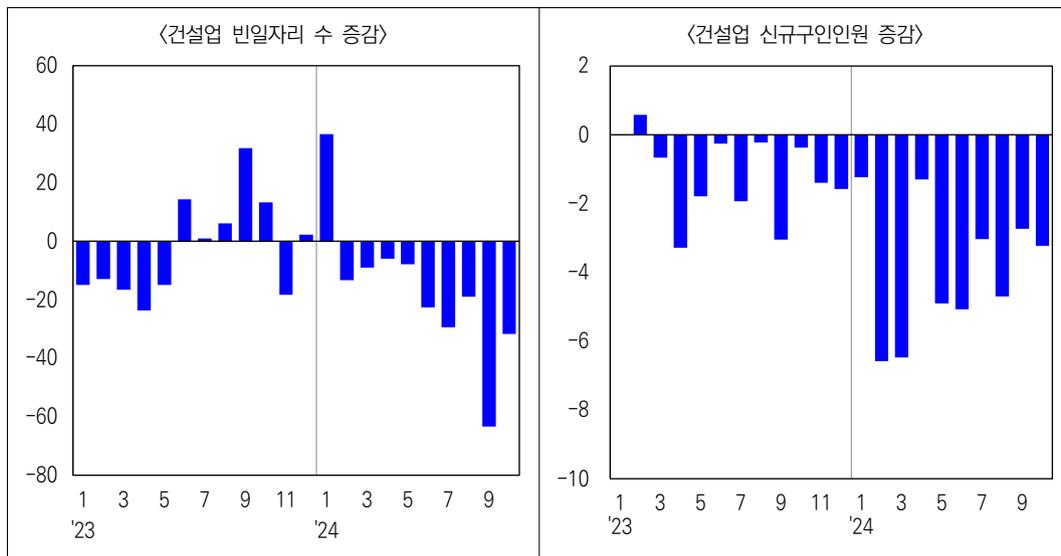


주: 경찰 입직자는 근속기간 3개월 미만 취업자를 의미하고, 사업체 입직은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채용 입직자수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통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EIS.

4) 즉, 건설업 실업자는 전직기간이 1년 이내인 이전 종사산업이 건설업이었던 실업자를 의미하고, 이 중 전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실업자를 건설업 신규실업자로 정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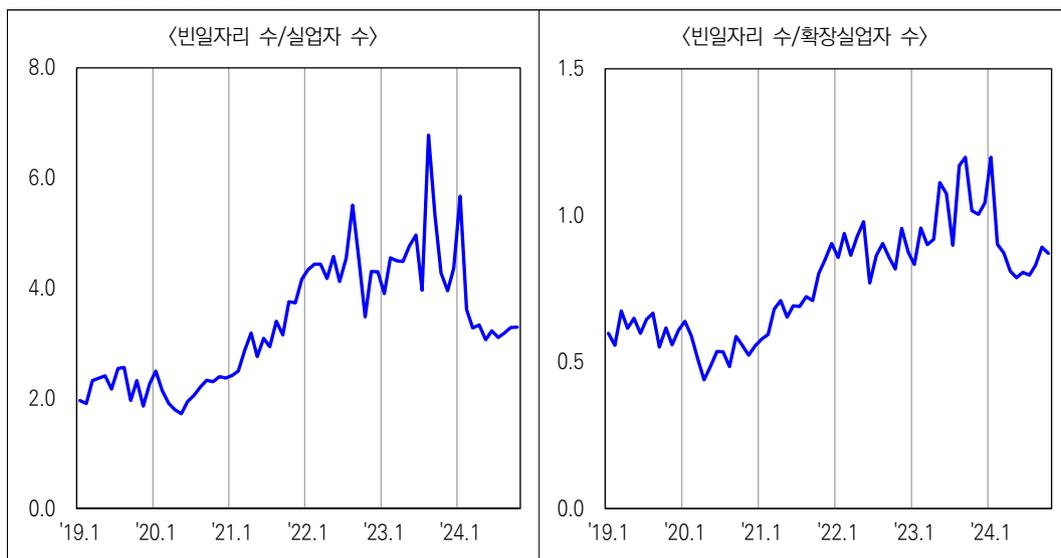
[그림 15] 건설업 빈일자리 수 및 신규구인인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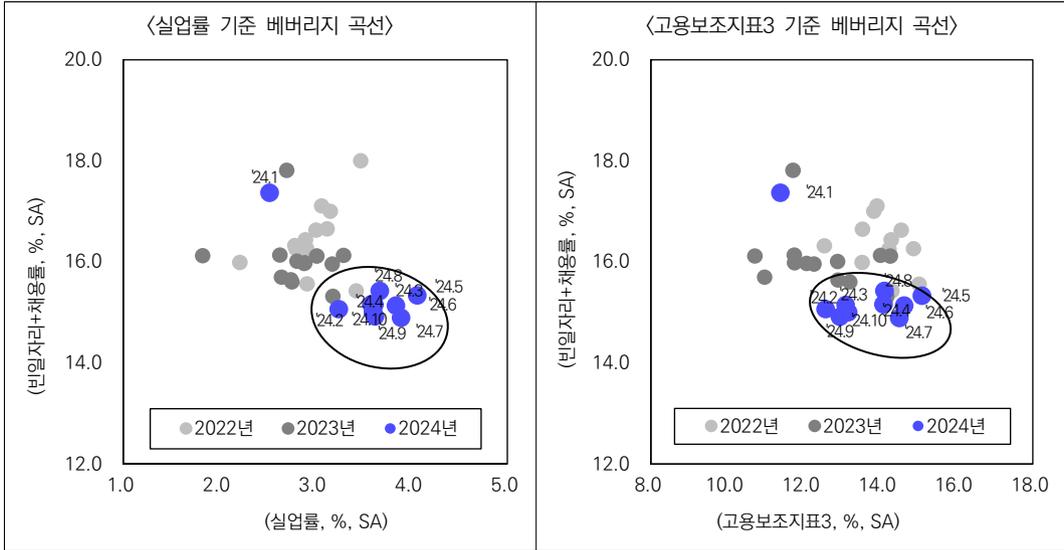
주 : 빈일자리 수는 조사기준월 마지막 영업일의 빈일자리 수 + 조사기준월의 초일부터 마지막 영업일 사이의 채용 수.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구인구직취업현황(워크넷)」.

[그림 16] 건설업 구인구직비율 추이



주 : 1) 빈일자리 수는 조사기준월 마지막 영업일의 빈일자리 수 + 조사기준월의 초일부터 마지막 영업일 사이의 채용 수,
 확장실업자 = 이전 중사산업이 건설업인 실업자 + 건설업 취업자 중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 + 이전 중사산업이 건설업인
 잠재구직자 및 잠재취업가능자
 2) 모두 계절조정자료.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17] 건설업 베버리지 곡선



- 주 : 1) 건설업 실업률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건설업 실업자 수/(건설업 실업자 수+건설업 취업자 수)*100, 건설업 고용보조지표3 = (건설업 실업자 + 건설업 취업자 중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 + 건설업 잠재구직자 및 잠재취업가능자)/(건설업 취업자 수 + 실업자 수 + 잠재경합)*100. 이때 실업자, 잠재구직자, 잠재취업가능자는 전직기간이 1년 이내 인 이전 종사산업이 건설업이었던 실업자, 잠재구직자, 잠재취업가능자를 의미함.
- 2) 실업자의 이전 직장 정보를 이용한 해당 산업의 실업률 측정은 실업자가 이전에 종사했던 업종에서 동일하게 구직활동을 한다는 가정을 내포함.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만 가용한 통계자료에서 산업별 실업자 수 계산을 위해 쓰이고 있는 방법 중 하나임.
- 3) 건설업 빈일자리율 = 사업체노동력조사의 건설업 빈일자리 수+채용 수/(건설업 빈일자리 수 + 채용 수 + 건설업 근로자(상용, 임시일용))*100임.
- 4) 건설업 실업률, 고용보조지표3과 건설업 빈일자리 + 채용률은 모두 계절조정 자료.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어 증가 규모가 다시 축소됐다(4천 명 증가). 증가 규모는 크지 않으나 건설업 신규실업자 대부분은 비자발적인 사유(직장의 휴업, 폐업, 명예퇴직, 조기퇴직, 정리해고,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경영 악화)로 실직한 사람이다.

건설 경기 부진으로 인한 노동수요(구인) 감소는 빈일자리 자료에서 확인된다. [그림 15]에 나타나듯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빈일자리는 연중 감소했고, 워크넷 자료에서도 건설업 신규구인인원이 매월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구직자당 빈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구인구직비율도 올해 들어 하락했다. 실업자 수 기준으로는 건설업 실업자 대비 건설업 빈일자리 수가 1보다 크지만, 실업자 대비 빈일자리 수 비율은 1월 이후 감소했다. 실업자 개념을 확장하여 건설업의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일할 의사가 있는 잠재경제활동인구까지 포함⁵⁾하면, 구직자 1명당 빈

5) 건설업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건설업 종사자 중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면서, 추가취업을 희망하고, 추가 취업이 가능한 자를 의미한다.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를 의미한다. 건설업 잠재경

일자리에는 1에 못 미치지 못하며, 이 역시 1월 이후 감소했다.

빈일자리율과 실업률 간 관계를 나타내는 베버리지 곡선도 2024년 중 곡선상 우하방으로 이동했다. [그림 17]은 건설업 베버리지 곡선을 나타낸다. 베버리지 곡선은 빈일자리율과 실업률 간 관계를 실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실업률(X축)과 빈일자리율(Y축) 평면에서 우하향하는 형태이다. 베버리지 곡선을 통해 경기적 요인에 의한 노동수급 상황을 평가해 볼 수 있다. 경기 확장기(수축기)에는 기업의 노동수요 확대(축소)로 구인활동이 활발(저조)해지면서 빈일자리가 증가(감소)하고 실업률은 하락(상승)한다. 그 결과 경기 확장기(수축기)에는 베버리지 곡선을 따라 좌측 윗부분(우측 아랫부분)으로 이동하게 된다. 2024년 건설업은 빈일자리율 하락과 실업률 상승으로 건설업 베버리지 곡선상 우측 아랫부분으로 이동했다. 건설 경기 악화로 기업의 건설 노동 수요가 축소되면서 베버리지 곡선을 따라 우측 하단으로 이동한 것이다.

III. 맺음말

2024년 건설 경기는 크게 악화됐다. 건설업 생산, 건설투자, 건설기성 등 건설 경기 지표가 모두 부진하다.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2023년 건설 수주 및 건축 착공이 급감했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된 것이다. 건설 자재비 영향을 크게 받는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수주가 급감했던 탓에 올해 건설 경기 부진도 건축 부문에서 컸다. 높은 건설 물가는 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여 2023년부터 건설기업 경영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건설 물가 오름세는 안정되었으나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태로 건설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건설업 고용은 경기 악화에 따라 큰 폭으로 감소했다. 건축 공사 물량 감소로 노동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2023년부터 종합건설업 고용 부진이 나타났고, 올해 들어 전문직별 공사업 고용도 감소하면서 전체 건설업 고용이 큰 폭 감소했다. 건설 경기에 민감한 일용직뿐만 아니라 상용직도 감소했고, 신규입직자 감소도 상용직과 일용직에서 모두 나타났다. 건설 경기 침체로 건설업 빈일자리도 빠르게 줄었다. 높은 공사비로 인해 과거에 비해 건설 경기 부진이 즉각적인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 **KL**

제활동인구는 이전에 건설업에 종사했던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이며, 건설업 잠재구직자는 이전에 건설업에 종사했던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간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이다.